

주체사상의 형성과 정치적 기능

오경섭*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주체사상의 형성
- IV. 주체사상의 정치적 기능
- V.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는 김일성이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1955년 12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제기했다는 것을 구명했다. 주체사상은 반대파 숙청, 탈소련·탈중국 노선 추진, 4대 주체 노선 추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됐다. 김일성은 4대 주체 노선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했다. 김일성이 주체사

상을 제기한 이후 조선로동당에서는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사라졌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함으로써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됐다.

주제어: 주체사상, 김일성, 숙청, 개인숭배, 주체노선, 자주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조선노동당은 이데올로기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적 이데올로기는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들이 헌법과 공산당 규약을 통해 공식적인 지도 사상으로 규정한 맑스-레닌주의 연구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1980)과 사회주의헌법(1992)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규정했다. 김일성은 왜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제기해서 사회주의국가들의 공식적인 지도 사상인 맑스-레닌주의를 대체했는가? 김일성이 제기한 주체사상의 이론적 구조와 정치적 기능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제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김일성이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 숙청, 내정간섭과 개인숭배 중단 압박에 대응한 탈소련·탈중국 노선 추진, 4대 주체 노선 추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제기했다는 것을 구명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체사상 연구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제기한 목적과 정치적 기능에 관해 진행됐다.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대립하는 주장으로 나뉜다. 주체사상이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장¹과 권력투쟁 수단이라는 주장²이다.

전자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형성된 북한식 발전전략의 총체적 노선과 원칙이라고 주장한다.³ 김일성 정권이 소련·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 발전전략인 4대 주체 노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통해 개인숭배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숙청하고, 수령 유일 지배체제와 후계체제를 정당화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¹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봄 통권 84호 (2014), p. 70; 광승지, “제2장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 91;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128.

²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23.

³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2014), p. 70.

후자는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주체사상이 권력투쟁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김일성이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를 숙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체의 확립을 제시했고, 반대파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체사상을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일성 정권이 주체사상을 통해 탈소련·탈중국 노선과 4대 주체 노선의 추진, 1960년대 말 수령유일지배체제와 후계체제를 정당화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선행연구들은 김일성이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제기했다는 것을 간과한다. 김일성은 주체의 확립을 제기한 후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숙청했고, 개인숭배 중단과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압박한 소련·중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추진했다. 또한 김일성은 탈소련·탈중국 노선의 대안으로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등 4대 주체 노선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범위는 김일성 개인숭배가 시작된 1946년부터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 주체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1965년 4월까지로 한다. 연구 내용은 총 5장으로 구성한다. 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다룬다. 2장은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정치적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3장은 주체사상의 형성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이 제기된 시기,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 실태, 주체사상 형성 시기의 대내외적 환경 등을 분석한다. 4장은 주체사상의 정치적 기능을 분석한다. 주요 내용은 김일성이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반대 세력 숙청, 탈소련·탈중국 노선과 4대 주체 노선 추진을 분석한다. 5장은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데올로기는 모든 연구자가 동의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연구자들이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심리학·정치학 분야의 경험적 연구는 이데올로기를 “일련의 신념 체계”⁴ 또는 “논리정

연하고(coherent) 비교적 안정적인 일련의 신념이나 가치”⁵라는 중립적 개념을 널리 사용한다. 해밀턴(Hamilton)은 이데올로기의 보편적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치학 분야에서 사용된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27개의 개념적 요소와 기준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옹호하고, 그것의 지지자들이 촉진·다실현·실행·유지하려고 하는 특정한 행동 방식의 정당화를 목표로 한 규범적이고 통설적인 실제의 사상·신념·태도를 유지하려는 집단적인 체계(system)”⁶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는 나이트(Knight)와 해밀턴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참조해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사회주의 지지자들이 북한 체제와 제도를 옹호·유지하기 위해 실행하는 행동의 정당화를 목표로 공유하고 있는 논리정연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일련의 신념이나 가치 체계로 정의한다.

이데올로기는 통치자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신념(ideas)이다.⁷ 어떤 정치체제에서든 이데올로기는 국가권력과 연결된다. 통치자는 이데올로기의 체계 내에서 권력을 사용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통치자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인민들의 복종과 지지를 설득하는 데 활용된다.⁸ 특히 사회주의국가는 이데올로기를 독점하면서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불허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지배 권력은 다른 가치와 신념을 폄하하고 배제하면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념을 촉진하고 정착시키고 일반화한다.”⁹ 사회주의국가는 헌법과 공산당 규약을 통해서 맑스-레닌주의를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규정한다.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⁴ John T. Jos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p. 309; Teun A. Van Dijk, “Ideology and Discourse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11, issue 2 (June 2006), p. 116; Joseph Schull, “What is Ideology? Theoretical Problems and Lessons from Soviet-Type Societies,” *Political Studies*, vol. 2, issue 4 (1992), pp. 729~731.

⁵ Kathleen Knight,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Id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4 (November 2006), p. 625.

⁶ Malcolm B. Hamilton, “The Elements of the Concept of Ideology,” *Political Studies*, vol. 35, no. 1 (1987), p. 38.

⁷ Terry Eagleton, *Ideology: an introduction* (New York: verso, 1991), p. 1.

⁸ Kevin Harrison, Tony Boyd, “The role of ideology in politics and society,” in *Understanding political ideas and movement*, Online Publication, July 30, 2018, <<https://doi.org/10.7765/9781526137951.00011>> (Accessed October 5, 2022), pp. 136~137, p. 145.

⁹ Yayoi Kato, “Two Faces of Ideology: Double-Edged Functions of Ideology in the Reform Discourse Under Xi Jinping,”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vol. 49, issue 2 (2021), p. 138.

원칙을 사회주의 체제에 내장시켰다. 소련의 공식 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인 맑스-레닌주의는 소련헌법, 공산당 규약, 계획경제 등 소련공산당 교리의 기초를 구성했다.¹⁰ 맑스-레닌주의는 각국의 사회 변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각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해서 국가 운영을 위한 노선과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각국의 사회주의 정권은 맑스-레닌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다. 예컨대 사회주의 체제는 행정명령경제의 한계로 인해서 만성적인 부족(shortage) 경제를 초래했다. 맑스-레닌주의 원칙은 실용적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¹¹ 사회주의 정권은 맑스-레닌주의와 새롭게 수정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서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사회주의 정권은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을 맑스-레닌주의의 맥락에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를 시도했다. “공산당은 정당성을 재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오래된 요소를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계획에 기초해 끊임없이 당 이데올로기를 개선하고 방향을 바꾼다”¹² 제시했다. 공식 이데올로기는 변화에 대해 합의한 이데올로기적 체계를 반영했다. 각국 공산당은 보완된 이데올로기를 활용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재생산했다.

소련·중국·북한이 대표적인 국가다. 소련·중국·북한은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를 개선하고 방향을 바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소련의 최고지도자는 정책 결정에서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제공했다. 최고지도자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식 이데올로기를 유연하게 만들었고, 창조적으로 수정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최고지도자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반대파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은 맑스 주의를 활용해서 공산당 일당 지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기했다. 맑스 주의를 혁명 이후 공산당이 지배기관으로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닌은 맑스-레닌주의에서 제시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라는 내용을 소비에트 정부가 존립하기 위해 ‘폭력과 무법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불가피하고, 계급독

¹⁰ Terry L. Thompson, *Ideology and Policy: The Political Uses of Doctrine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Routledge, 2018), p. 1.

¹¹ *Ibid.*, p. 1.

¹² Yayoi Kato, *Ibid.*, p. 138.

재와 당 독재는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³

중국은 통치과정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규약은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¹⁴고 규정했다. 중국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마오주의를 제시했다. 마오주의는 혁명에서 가장 결정적 요소는 인간의 의식, 즉 관념과 의지 및 인간의 행동이라는 강한 주의주의적 신념이었다. 마오쩌둥은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강력한 결정론적 교의에서 벗어나 혁명가는 자신의 관념과 이상을 가지고, 사회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역사발전의 객관적 힘에 의한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 행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오쩌둥의 주의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결정론적 경향에서 벗어나 마르크스주의를 중국혁명의 필요에 맞게 변용했다. 중국혁명은 이미 결정된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었다.¹⁵ 마오주의는 소련식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중국식 발전전략의 추진을 정당화했다.

북한은 대내외 정치적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선군사상과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제시했다. 주체사상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숙청하는 도구였고,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추진하면서 정치·경제·국방 등 분야에서 주체의 발전 노선으로 활용했다. 김정일은 대기근과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권 붕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선군사상을 제시했다. 선군사상은 군부를 정치의 전면에 세우고, 군대와 군사 문제를 중시한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였다. 김정일은 선군사상을 제시하면서 군부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군정치를 정당화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로기는 권력투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정권은 “권력투쟁을 숨기는 이데올로기적 눈속임(window-dressing)”을

¹³ 레오날드 샤피로, 심흥모 역, 『蘇聯共產黨史』(서울:文學藝術社, 1986), pp. 203~205.

¹⁴ “중국공산당 당규약,” 『인민넷』, 2017년 10월 24일 통과, <korean.people.com.cn/73554/311142/311157/15688750.html> (검색일: 2023.2.3.).

¹⁵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서울:이산, 2006), p. 78.

통해서 “권력투쟁의 은폐물을 제공하고”¹⁶ 정치를 신뢰하게 만드는 데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 통치자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반대파 숙청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데올로기를 사용했다. 각국의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해서 공산당의 권력에 도전하는 지주·자본가를 혁명의 적이나 노동계급의 적으로 간주해서 숙청했다.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에 반대한 공산주의자들을 혁명의 적이나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했고, 주체사상을 활용해서 반대파 숙청을 정당화했다.

III. 주체사상의 형성

1. 주체사상의 제기

주체사상의 형성 시기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 북한 당국은 1930년 창시설을 주장한다. 김정일이 1982년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1930년 창시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1930년 만주 장춘현 카륜에서 진행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함으로써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주장한다.¹⁷ 그러나 김정일의 1930년 창시설은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이 1955년 이후에 제기됐다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이전에 진행한 공식 연설이나 담화에서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주체라는 개념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원 대회에서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 담화에서 처음 사용됐다. 둘째,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근로자』에서는 주체사상이 창시된 시기를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담화라고 밝혔다. 『근로자』 1965년 10월호에서 신진균은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담화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을 전면적·체계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¹⁸ 셋째, 주

¹⁶ Kevin Harrison, Tony Boyd, “The role of ideology in politics and society,” p. 137.

¹⁷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369.

¹⁸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10월호 (1965), p. 18; 재인용: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p. 13.

체사상이라는 개념은 1962년 12월 29일 노동신문 논설에서 처음으로 “주체에 대한 사상은 우리당이 자기행동에서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¹⁹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일성은 1963년 4월 18일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²⁰

북한의 사상이론가들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의 개념과 내용을 발전시켜 1962년 주체사상을 4대 주체 노선으로 제시했다. 주체사상을 제기한 시기는 주체의 개념과 주체사상의 핵심 가치(core values)²¹를 제기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1955년 12월이고, 주체사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1962년이다. 이 연구는 주체사상의 핵심 가치인 주체가 제기된 1955년 12월 담화를 주체사상의 형성 시기로 본다. 담화에서 제시된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쓰련공산당 역사를 연구하는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는것이나 우리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 주체가 없다 하여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혁명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사상사업에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되며 우리 혁명사업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²²

주체사상 이론화를 주도한 황장엽도 김일성이 1955년 12월 담화에서 주체사상을 처음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주체는 혁명이므로 “큰 나라들을 무조건 숭배하고 자기 나라를 깔보는 사대주의와 큰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를 반대”²³하면서 맑스-레닌주의를 북한혁명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¹⁹ “1962년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 『노동신문』, 1962.12.19.

²⁰ 김일성,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회의에서 한 결론, 1963.4.18.),” 『김일성 저작집 1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16.

²¹ Feliks Gross, *Ideologies, Goals, and Values* (London: Greenwood Press, 1985), p. 48.

²²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 선전선동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12.28.),”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68.

²³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pp. 136~137.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황장엽은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이 제기한 군중노선인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해서 주체사상을 체계화했다. 군중노선은 군중 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에게 배우고 가르쳐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데 군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황장엽은 혁명은 운동이므로 주체는 곧 인민(군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이론화했다고 밝혔다. 주체사상의 핵심 내용은 마르크스주의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창조적 입장과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 입장을 지키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채택했다. 주체사상의 기본 노선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정식화했다.²⁴

2.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

북한은 소련 군정 시기부터 스탈린 통치의 영향을 받아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우상화를 진행했다. 당·국가의 권력은 김일성에게 집중됐다. 소련 군정에 참여한 소련 출신 한인들은 소련의 스탈린 개인숭배를 모방했다. 김일성은 1946년 4월 이후 수령으로 불렸다. 1947년 이후 문학예술에서는 김일성 형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김일성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호칭은 6.25전쟁을 계기로 당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이 호칭은 당과 군을 넘어 다른 정당·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사용됐다. 김일성의 혁명 활동에 관한 강연회도 개최됐다. 조선노동당은 1952년 3월부터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구호를 걸었다. 『로동신문』은 4월부터 ‘김일성 장군 략전’을 실었다. 박헌영 등 지도자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만수무강을 축원했다. 만경대 김일성 생가에는 기념관을 건립했다. 조선노동당은 1953년 이후 북한의 역사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여기에 참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술했고, 1954년 이후 당차원의 공식적 연구를 결정했다.²⁵

조선노동당은 1953년 2월 24일 조직위원회 제127차 회의 결정서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회과학부의 사업내용을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사회과학부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사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항일무장 유격투쟁의 역사를 리론적으로

²⁴ 위의 책, pp. 136~137.

²⁵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145~148, pp. 249~250; 배개화, “북한 문학과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노선, 1953-1956,”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4집 (2018), pp. 354~355.

천명하며 해방후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길을 리론적으로 총화하여 이를 인민대중 속에 광범히 전파한다”²⁶고 밝혔다. 황장엽은 북한에서 김일성 개인승배가 심했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서 북한의 개인승배가 가장 심했다. 그 까닭은 북한에 봉건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었고, 또 권력을 잡은 김일성이 나이도 젊고 공산주의 투쟁 경력도 미미한데 있었다. (중략) 그의 경력은 중국의 지도자들과는 상대가 안되었다. 소련군 대위를 북조선의 전설적 영웅으로 치켜세우기 위해서는 과장된 선전이 필요했을 때인데, 당시 조선은 일제의 압제를 뼈아프게 겪은 상태여서 과대선전에는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²⁷

김일성 개인승배와 권력 집중의 심각성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⁸ 1956년 3월 21일 내각 부수상 박의완은 이바노프 대사에게 “김일성 개인승배는 아침 일꾼들, 할렐루야 일꾼들을 낳았고, 그 결과 언론은 평정심과 실무적 어조를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진실을 미화하고, 광적인분위기에서 기사들을 바치고 있다”²⁹고 지적했다. 특히 김일성 개인승배 상징물이나 행사는 전국적으로 세워진 김일성 동상, 김일성 초상화, 김일성 기념장소, 김일성과 관련한 돌을 찬미하는 영상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와 작가들의 작품, 김일성 축하회 등이라고 비판했다. 소련대사관이 1956년 8월 30일 소련공산당에 보낸 조선노동당 3차 당대회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초상화, 흉상, 전시, 영화, 사진, 책 등에서 김일성을 미화하는 등 김일성 개인승배가 변성한다고 밝혔다. 당 조직은 김일성을 ‘인민들의 구세

²⁶ “자료 4 : 사회과학부 사업내용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조직위원회 제127차 회의 결정서 1953년 2월 24일, 『北韓關係史料集 30』(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421.

²⁷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p. 105~106.

²⁸ “Report from I. Kurdyukov to V.M. Molotov,”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May 11, 195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5702>> (Accessed October 1, 2022);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Pak Ui-wan,”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September 06, 1956,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38>> (Accessed October 1, 2022).

²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2월 8일~3월 27일),” 『북한관계사료집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25&totalCount=25&prevPage=0&prevLimit=&itemId=nkhc&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nkhc_073_0330_0050&position=3> (검색일: 2022.10.1.).

주’, ‘위대한 군 지도자’, 마르크스주의자로 묘사한 김일성 자서전을 배포한다. 조선인들의 전체 투쟁의 역사는 김일성의 혁명활동으로 요약된다. 일부 장군들은 군 강연에서 김일성 찬양을 적게 했다는 이유로 강등됐다.³⁰

김일성 개인숭배는 1956년 8월 전원회의 당시 주소련 북한대사 리상조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개인숭배를 강화하면서 모든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집중시켰고, 당·정부·인민 위에 군림했다. 공공기관에는 스탈린 초상화 옆에 김일성 초상화를 걸었다. 언론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했다. 김일성 개인숭배는 신문·잡지·교과서·소설·예술작품에 나타난다. 김일성의 사소한 발언도 정치 슬로건으로 등장했다. 리상조 대사는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김일성 개인숭배의 결과를 제거하는 문제와 김일성 개인숭배의 영향으로 왜곡된 조선 인민의 민족해방투쟁 역사를 회복하는 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¹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은 1953년 스탈린 사망과 흐루시초프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소련공산당은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이후 스탈린 개인숭배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주의국가들에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우상화 중단을 요구했다. 흐루시초프는 1956년 2월 25일 소련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라는 보고문을 발표했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우상화, 당내 민주주의 파괴, 대규모 숙청과 테러를 비판했다.³²

흐루시초프는 조선노동당에 김일성 개인숭배와 우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성 정권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세운 지도자였고, 스탈린 만세를 가장 많이 외쳤고, 스탈린 체제를 모방해서 개인숭배를 강화했다.

³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2월 8일~3월 27일),” 『북한 관계사료집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Record of the Third Congres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by L.I. Brezhnev,”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April 30, 1956,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20183>> (Accessed October 1, 2022); “8월 종파사건, 미코얀 파일,” 『한미저널』 <korusjournal.com/sec/foreign-doc-main/8월종파사건/> (검색일: 2022.11.13.).

³¹ “Letter from Ri Sang-jo to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October 5, 1956,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52>> (검색일: 2022.10.1.).

³² 박상철 옮김,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 (서울: 책세상, 2019), pp. 15~16, pp. 36~37.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은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을 의미했다. 소련공산당 노선을 추종하는 소련 출신 한인들과 당원들이 들고일어나 김일성 개인숭배를 반대할 수 있었다.³³ 김일성은 소련공산당의 개인숭배 중단과 집단지도체제 도입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김일성은 소련공산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주체의 확립을 제기했다.

주체의 확립은 김일성이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지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3가지 정치적 과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첫째, 김일성은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에 반대하는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정당화했다. 김일성 반대파들은 소련식·중국식 사회주의를 무조건 모방·추종하면서 교조주의·형식주의에 빠져 종파 활동을 일삼는 세력으로 낙인찍어 숙청됐다. 둘째, 김일성은 개인숭배 중단과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압박하는 소련·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정당화했다. 셋째, 김일성은 탈소련·탈중국 노선의 대안으로 제시된 4대 주체 노선을 정당화했다.

3. 김일성 정권의 대내외적 위기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은 스탈린식 개인숭배와 우상화를 추종하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영향을 미쳤다. 흐루시초프는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스탈린 개인숭배를 추종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개인숭배 중단과 지도자 교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³⁴ 흐루시초프 비밀연설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헝가리에서는 가혹한 공산당 지도자들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소련이 유고슬라비아에 양보하고, 흐루시초프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길이 나라마다 다양하다고 말한 것은 일부 동유럽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에서 임명한 증오스러운 지도자들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로 교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산시켰다.³⁵ 폴란드·헝가리에서는 자유화 운동이 발생했다. 소련군은 1956년 6월 28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발생한 반소비에트 운동

³³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pp. 106~107.

³⁴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p. 17.

³⁵ 레오나드 샤피로, 심흥모 역, 『蘇聯共產黨史』, p. 520.

을 진압했다. 공산당 제1서기에 오른 브와디스와프 고무우카는 소련과 유사한 개방 조치를 단행했다. 소련군은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에서 발생한 반소 시위도 진압했다. 소련군은 헝가리 시위를 무력 진압했고, 너지 임레를 비롯한 지도부를 체포해서 처형했다.³⁶

동유럽의 정치적 상황은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에 심각한 위협요인이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반대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소련군이 김일성 교체를 실행할 수도 있었다. 흐루시초프가 김일성 개인숭배 중단을 요구한 후 북한에서는 대내적 갈등이 커졌다. 소련의 김일성 개인숭배 중단 요구는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인사들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중단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는 개인숭배 중단, 당내 민주주의 보장,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일성은 더 이상 맑스-레닌주의 처방으로는 대내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다. 소련은 물론이고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근거로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지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주체의 확립을 제기했다. 조선노동당은 1956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내에 약간의 개인숭배 현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소련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본 전원회의는 이미 1956년 3월 전원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정도의 개인숭배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한다. 이는 주로 우리 당사사상사업에서 한 개인의 역할과 공로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데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는 당중앙위원회가 당적지도의 최고원칙으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집체적 지도와 당의 로선과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 본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가 최근 년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숭배와 관련된 표현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목을 돌려왔으며, 또한 1956년 3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신속히 더욱 철저하게 시정하기 위하여 신중한 조치들을 취한 것이 정당하였다고 인정한다.³⁷

³⁶ 장은주, “너지 임레의 헝가리 식 사회주의와 카다리즘-1956년 헝가리 혁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통권 91호 (2013), pp. 5~14.

³⁷ “형제적 제 국가를 방문한 정부대표단의 사업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관하여 (전원회의의 결정, 1956년 8월 30일~31일),” 『北韓關係史料集 30』 (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780.

김일성은 1956년 4월 23일 제3차 당대회 사업총결보고에서 박헌영의 이상화를 비판했다. 종파분자들이 반당적 책동을 감행한 것은 무원칙한 개인숭배 사상으로 인해 종파분자들과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파적 영향에 물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개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이상화했고, 박헌영의 지혜를 높게 평가하며 맹종함으로써 과오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방 직후 남한에서 당원들과 간부들이 박헌영과 종파분자들을 이상화하지 않았다면 남조선노동당이 파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⁸

김일성은 개인숭배의 책임을 이미 처형당한 박헌영에게 뒤집어씌웠다. 사업총결보고에서는 “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대중의 신임과 존경을 개인숭배와 혼동함으로써 당의 령도를 훼손하려 하며, 당 지도자들의 역할을 부인하며, 당의 중앙집권제를 무시하며,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을 조성하며, 당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옳지 않은 경향에 대하여 당은 경계하여야 한다”³⁹고 강조했다. 김일성은 개인숭배를 근절하기 위해 당원들과 대중들을 꾸준히 교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는 인정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는 숙청했고,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추진했다. 김일성은 주체의 확립을 제기하면서 조선노동당 당원들과 인민들이 소련식·중국식 사회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거나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는 소련·중국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고 추종하는 교조주의자·형식주의자로 몰렸고, 파벌을 구성해서 권력에 도전하는 종파분자로 규정됐다.

IV. 주체사상의 정치적 기능

1. 반대파 숙청

김일성은 주체의 확립을 제기하기 전인 6.25전쟁 과정에서 개인숭배와 권력 집

³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73~275.

³⁹ “형제적 제 국가를 방문한 정부대표단의 사업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관하여,” 『北韓關係史料集 30』, p. 781.

중에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간부들과 정치세력을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했다. 1950년 12월 연안계의 대표적 인물인 무정이 제거됐다. 소련계 한인들의 중심인물인 허가이는 1951년 11월 당 중앙위 비서와 조직부장에서 해임됐고, 1953년 7월 사망했다. 북한은 허가이가 자신의 과오가 당에 폭로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⁴⁰ 그러나 허가이 자살은 많은 의문을 남겼다.

김일성파는 강력한 경쟁 파벌이었던 남조선노동당 출신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했다. 남로당파는 반국가 반혁명 간첩죄를 뒤집어쓰고 숙청됐다. 리승엽·박승원·조일명·림화·배철·김응빈·윤순달 등 12명은 6.25전쟁 중인 1953년 3월 5일 체포됐고, 박현영은 3월 11일 체포됐다. 남로당파는 미제의 스파이, 반당적 반국가적 종파행위, 쿠데타 기도 등의 혐의로 사형당했다. 북한은 종파-스파이도당들이 사전에 박현영 정부를 조직했고, 1952년 미국 군대의 진공작전과 배합하여 소위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미국 군대의 힘을 빌어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했다고 주장했다.⁴¹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의 확립을 제기했다. 김일성 반대 세력은 교조주의·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한 종파분자로 낙인찍혔다. 1955년 11월 연안계 출신인 박일우는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박현영·리승엽 도당들과 결탁하여 당을 반대하는 반당적·반혁명적 종파 행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숙청됐다. 1955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박일우의 반당 종파 문제에 대한 당검열위원회의 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⁴² 김일성은 남로당파의 리승엽, 소련파의 허가이, 연안파의 박일우가 출신 지역을 자기의 종파적 목적에 이용한 대표적인 종파분자들이라고 비난했다.⁴³ 김일성은 1956년 1월 당 상무위원회에서 박창옥·박영빈이 당의 조직로선과 당의 사상 및 문예정책을 집행하면서 박현영·리승엽 간첩도당들과 허가이의 반당적 행위의 악영향을 숙청할데 대한 당의 일련의 중요한 방침들을 옳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창옥은 박영빈·기석복

⁴⁰ “박현영의 비호 하에서 리승엽도당들이 감행한 반당적 반국가적 범죄적 행위와 허가이의 자살 사건에 관하여(전원회의 제6차 회의 결정서 1953년 8월 5일~9일),” 『北韓關係史料集 30』(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pp. 391~393.

⁴¹ 위의 글, pp. 386~390.

⁴² “박일우의 반당적 종파행위에 대하여(12월 전원회의 결정 1955년 12월 2~3일),” 『北韓關係史料集 30』(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pp. 662~666.

⁴³ 김일성, “사회주의혁명의 현재단계에 있어서 당 및 국가 사업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5년 4월 4일),” 『김일성저작집 9』, p. 296.

·전동혁·정를을 자기 주위에 끌어들여 사상전선과 문학예술 분야에서 당의 정책을 고수하지 않고 부르주아 반동사상과 결탁하여 당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비판받았다.⁴⁴

호루시초프가 김일성 개인숭배 중단을 요구한 후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에 대한 반대를 행동으로 옮겼다. 일부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인사들은 서로 멀리했으나 김일성 개인숭배 반대를 위해 협력했다. 연안계인 최창익 부수상은 소련 출신 한인인 김승화의 도움으로 1956년 6월 8일 북한 주재 소련대사 이바노프를 만났다. 최창익은 이바노프 대사에게 출신 지역에 따른 간부 선발과 가족주의, 부적절한 인사들의 간부 임용, 당내 민주주의 원칙 부재, 소련 문화 배척, 김일성 개인숭배 만연 등 당내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또한 당 내부 세력은 문제를 해결하고 당·국가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소련공산당이 북한 내정에 개입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⁴⁵

1956년 7월 20일 박창옥은 같은 소련 출신 한인인 남일 외무상을 찾아가 8월 전원회의에서 김두봉·최창익·서휘·고봉기·리필규·윤공흠·김승화·박창옥 등이 당 지도부에 반대하는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판내용은 개인숭배, 민주주의 부재, 인민 생활 개선 노력 부재 등 당 내부 결함이었다.⁴⁶ 연안계 리필규는 소련대사관 참사 페트로프에게 자신들이 무력 쿠데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계 최창익·김두봉은 김일성을 만나 당내 개인숭배, 집단지도의 부재, 인민 생활 파탄, 편향된 인사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⁴⁷

김일성과 반대파는 소련공산당이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소

⁴⁴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상무위원회 결정 1956년 1월 18일),” 『北韓關係史料集 30』(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pp. 821~826.

⁴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5월 24일~6월 11일),” 『북한관계사료집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nkhc&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nkhc_073_0370_0060&position=-1> (검색일: 2022.10.1.).

⁴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8월 6일~8월 24일),” 『북한관계사료집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totalCount=0&prevPage=0&prevLimit=&itemId=nkhc&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nkhc_073_0390_0020&position=-1> (검색일: 2022.10.1.).

⁴⁷ 조수룡, “북한 역사상 제1대 사건, 1956년 8월전원회의,” 『내일을 여는 역사』, 74호 (2019), p. 207.

련공산당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주도권은 인정했다. 소련대사관 참사 페트로프는 8월 2일 소련공산당 중앙위 전보를 김일성에게 전달했다. 전보는 당과 정부 활동의 결점을 비판하는 데 김일성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바노프 대사는 당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당 지도부의 과오를 능동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입장을 전했다.⁴⁸ 김일성은 소련공산당이 자신을 최고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숙청에 착수했다.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는 1956년 8월 30일 제3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연안계인 윤공흠은 사전에 준비한 성명을 발표했다. 윤공흠은 성명에 “중앙위원회와 모든 수준의 당 조직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활발하게 보장하라, 개인숭배를 지적하는 동지들을 향한 종파주의자 또는 반당분자라는 낙인찍기를 즉각 중단하라,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에 대한 감시, 압박의 실행과 여타의 방법들을 즉각 멈춰라”⁴⁹는 요구 사항을 담았다. 또한 당중앙위원회가 김일성의 개인숭배 이념과 당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50여 명의 전원회의 참석자 중에서 20여 명의 김일성 지지자들이 윤공흠의 발언에 반발했다. 대다수 참석자는 테러 분위기 속에서 침묵하거나 웃었다. 전원회의 의장인 최용건도 주먹을 흔들며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윤공흠을 비난하고 폭행했다. 김일성은 성명을 계속하려는 반당세력과 반동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면서 회의 중단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한 투표는 7표의 반대표와 대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윤공흠은 성명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최창익과 박의완은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으나 김일성 지지자들로부터 모욕만 당했다. 김일성은 윤공흠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방할 것을 제안해서 관철했다. 윤공흠은 오후 시간에 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오후 회의에서 리주연·박용국·김창만은 윤공흠과 동조자들을 반동분자로 규정하며,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오후 회의도 무질서하게 진행됐다. 김일성은 결론에서 윤공흠을 반당 반동분자로 규정했고, 서휘·리필규 등 동조자들은 윤공흠과 같이 반당 반동분자들이므로 물리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⁰

⁴⁸ 위의 글, p. 208.

⁴⁹ “8월 종파사건, 미코안 파일,” p. 102.

⁵⁰ “8월 종파사건, 미코안 파일,” pp. 86~87.

북한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최창익·윤공흙·서휘·리필규·박창옥이 병원·휴양소·사택·사무실 등에서 빈번한 비밀회담을 진행하며 측근들과 불순분자들을 규합해서 반당적 음모를 조직하기 위한 비밀과업을 주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반당종파 활동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창익 등은 반당 종파분자로 규정돼 당중앙위원회에서 제명됐고, 내각에서 철직됐다.⁵¹ 최창익 등을 숙청한 이유는 개인숭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개인숭배가 정당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됐지만 개인숭배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선전을 통해 지도부의 권위를 해치고, 당의 규율을 파괴하여 당내 혼란을 조성하려고 했다고 비난했다.⁵²

북한 정권은 1957년부터 1959년까지 전 사회적으로 반동분자·적대분자 색출작업을 통해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했다. 1958년 10월부터 1959년 3월 사이에 6만 명의 범죄자가 색출됐다. 적대분자는 1만 명 이상, 간첩 활동자는 2천 명이였다.⁵³ 8월 종파사건 이후 당에는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에 반대할만한 정치 세력이 사라졌다. 김일성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더욱 강화했다. 8월 종파사건 이후에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구축됐다.

2. 탈소련·탈중국 노선 추진

김일성은 주체의 확립을 제기한 후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 중단을 요구하는 소련·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추진했다. 탈소련·탈중국 노선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지속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였다. 소련·중국은 6.25전쟁에 대한 후원과 참전, 막대한 원조 제공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경제 등 북한 내정에 개입했다.⁵⁴ 소련은 북한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스탈린의 선택으로 최고지도자에 올랐다.⁵⁵ 1950년대 초반

⁵¹ “최창익·윤공흙·서휘·리필규·박창옥 등 동무들의 종파적 음모행위에 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8월 30일~31일), 『北韓關係史料集 30』(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pp. 784~788; “8월 종파사건, 미코안 파일,” pp. 10~14.

⁵² “8월 종파사건, 미코안 파일,” pp. 11~12.

⁵³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현대북한연구』, 2권 2호 (1999), p. 59.

⁵⁴ 김보미,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 『아세아연구』, 제56권 4호 (2013), p. 305.

⁵⁵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pp. 30~31.

까지 북한의 주요 당대회와 당의 공식 문건에서는 스탈린 만세를 외쳤다. 북한 주둔 소련군에는 소련 출신 한인들이 배속돼 고문정치를 실시했다. 소련 출신 한인들은 주요 부문에서 정책 작성부터 집행까지 지도하면서 영향을 미쳤다.⁵⁶

소련공산당은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소련 외무성 극동국 북한 전문가들은 1955년 초 북한지도부에 공식적 요구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경제문제 외에도 당내 민주주의 신장과 집단지도체제 확립, 당·정의 주요 직위 배분을 통한 권력 분산이 포함됐다. 권력 분산 문제는 “김일성 동지에게 주의를 준다”⁵⁷고 명시했다. 1955년 1월 소련공산당 중앙위는 김일성을 기소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일성이 우상숭배 현상을 일으켜 당·정·군의 모든 힘을 자신의 권위 아래 통합하려 했고, 곡물의 강제 몰수를 통해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내용을 담았다. 흐루시초프 집권 이후 소련은 정치·경제·군사·대외관계 등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⁵⁸ 1955년 초 부임한 이바노프 소련대사는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권고하는 정책을 실행하는지 감시하라고 지시받았다.⁵⁹ 1955년 말부터 김일성 개인숭배에 대한 소련의 압박이 강화됐다. 소련의 압박은 김일성의 권력을 위협했다. 김일성은 권력 유지를 위해 소련의 압박에 대응해 탈소련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⁶⁰

소련은 북한의 경제정책에도 개입했다. 김일성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중공업 중심 경제발전 전략과 급진적 사회주의 이행 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소련은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주의 이행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양국의 갈등은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1954~1956)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소련공산당은 1953년 9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에게 중공업 우선 복구노선에서 경공업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3개년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10억 루블의 원조가 걸려 있었으므로 소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

⁵⁶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pp. 310~316;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서울: 시대정신, 1999), pp. 128~129.

⁵⁷ 김재용,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 북소 관계의 균열,” 『史叢』, 제104호 (2021), pp. 150~151.

⁵⁸ 위의 글, p. 156.

⁵⁹ AVPRF, fond 102, opis 11, papka 60, delo 7.1.35, 김보미,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81 재인용.

⁶⁰ 이주철, “후전후 북한주재 소련대사의 활동: 소련의 영향력과 김일성권력의 자율성,”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12.), p. 515; 권혁범, “1950년대 북한의 정치변동(1953-1958): 김일성계 권력독점체계의 확립,” 『아세아연구』, 통권 95호 (1996), p. 22.

다. 북한은 경공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3개년계획을 수정했다.⁶¹

그러나 김일성은 1954년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으로 선회했다. 김일성은 1954년 3월 박창옥과 김일을 내각에 배치해서 소련의 압력으로 수정한 중공업 우선 복구 노선을 3개년계획에 반영했다. 북한은 1954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3개년계획 초안에 비해 중공업 부문 성장 목표를 확대한 3개년계획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과 급진적 사회주의 개조를 추구하면서 1954년 농업 협동화를 진행했다.⁶² 북한의 급진적 경제정책은 기근으로 인한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소련은 북한이 3개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중공업 우선 정책에 치중하고 소비재 생산 증대를 소홀히 해서 인민 생활을 궁핍하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⁶³

소련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를 빌미로 내정에 개입했다. 1955년 4월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소환해서 공업화와 농업 협동화의 속도를 늦출 것,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 소비재 생산을 늘릴 것 등 제1차 5개년계획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일성은 표면적으로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일성은 소련의 내정간섭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응하지 않았다. 당내에서 김일성 책임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⁶⁴

중국은 6.25전쟁 참전과 대북 원조를 바탕으로 1956년까지 북한의 국내 정치를 비롯해 군사정책·경제정책에 개입했다. 김일성은 6.25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모택동의 동의를 받았다. 중국은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깊숙이 연루됐다. 중국군은 유엔군과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는 상황에서 6.25전쟁에 참전해서 김일성 정권의 붕괴를 막았다. 중국군은 6.25전쟁 당사자로 휴전회담에 참여했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거의 붕괴 직전인 북한정권을 구했다는 “권리의식”과 6.25전쟁으로 인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안보위협”이 초래됐다는 것으로부터 내정간섭을 정당화했다.⁶⁵

⁶¹ 조수룡, “북한 역사상 제1대 사건, 1956년 8월전원회의,” pp. 203~204; 백학순, 『북한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 226.

⁶²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 (2018), p. 236.

⁶³ 김보미,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 p. 319.

⁶⁴ 조수룡, “북한 역사상 제1대 사건,” p. 205; 조수룡,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 『歷史學報』, 제249輯 (2021.3.), pp. 200~201;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현대북한연구』, 2권 2호 (1999), p. 35.

⁶⁵ 김동길·한상준,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제20권 2호 (2014), p. 75.

중국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반대했다. 북한의 총병력은 4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고, 대규모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공군 및 기계화 부대 보유를 반대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은 인민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데 지출할 것을 권고했다. 마오쩌둥은 1953년 11월 전후 복구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북경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박헌영에 대한 반역의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956년 9월 18일 중국을 방문한 최용건에게는 연안계 인사인 박일우, 방호산, 김웅 등의 숙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⁶⁶ 중국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부터 1958년까지 북한에서 군사력 증강 지원과 전후 복구 임무를 수행했다.⁶⁷ 중국군의 북한 주둔과 중국의 내정간섭은 김일성 정권에게 큰 부담이었다.

소련·중국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내정에 직접 개입했다. 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에 대한 소련·중국의 개입을 계기로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추진했다. 김일성은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에 반대한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핵심 인사들을 숙청했다. 윤공흠·서휘·이필규·김강은 8월 30일 전원회의의 회의장을 나와 중국으로 망명했다. 서휘 등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김일성의 무분별하고 가혹한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에 머무를 수 없고, 조선노동당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에 감사를 표하며 당내 민주주의의 결여, 김일성 개인숭배 만연, 반대파를 파벌주의로 공격 등 조선노동당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일성이 북한혁명 과정에서 장애물로 변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⁸

소련주재 북한대사였던 리상조는 1956년 9월 5일 소련공산당에 8월 종파 사건에서 숙청당한 간부들에 대한 구명 활동을 진행했다. 리상조는 흐루시초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소련공산당은 중앙위원회 지도자를 북한에 보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반대파 숙청을 바로 잡는다. 둘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이 모스크바로 쫓겨난 동지들을 초청해서 조선노동당의 문제를 해결

⁶⁶ 김동길·한상준,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pp. 72~78.

⁶⁷ 이상만·이상숙·문대근, 『북중관계: 1945-2020』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p. 45.

⁶⁸ “8월 종파사건, 미코얀 파일,” pp. 75~88.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소련공산당은 반대파 숙청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서신을 보낸다. 넷째,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한다.⁶⁹

소련·중국은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을 되돌리기 위해 움직였다. 소련 정치국은 1956년 9월 15~27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자대회에 소련 대표로 참석한 미코얀에게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 문제를 북한과 중국지도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전권을 위임했다. 마오쩌둥도 중국으로 탈출한 서휘 등 4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 1956년 9월 18일 미코얀은 마오쩌둥과 회담을 통해 8월 종파사건 처리 방침을 논의했다. 마오쩌둥은 8월 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여 해당 인사들의 당적과 직무를 회복하고, 중국으로 탈출한 인사들의 귀국을 허용하고, 그들을 체포하지 말도록 김일성에게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미코얀은 이 의견에 동의했다. 회답에서는 미코얀과 평더화이를 양국대표로 하는 8명의 소련·중국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서 쌍방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회답에서는 김일성의 정적 숙청과 한국전쟁 도발 책임 등을 비난했으나 김일성 축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국은 김일성 타도가 아니라 김일성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의했다.⁷⁰

양국 대표단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등 북한 지도자들과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요구 사항은 8월 전원회의 결정의 전면 취소였다. 김일성은 출당된 인사들의 복당은 허용할 수 있으나 복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⁷¹ 9월 22일 양국 대표단과 북한은 최창익·윤공흠·서휘·리필규·박창옥 문제를 재심의하는 전원회의 초안을 협의했다. 미코얀과 평더화이는 전원회의 결정이 부족했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고, 처벌한 간부들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성은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⁷²

북한은 1956년 9월 23일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최창익 등의 숙청 문제를 재심의했다.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과 양국 공산당 대표

⁶⁹ 위의 글, pp. 73~74.

⁷⁰ 김동길·한상준,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pp. 139~140.

⁷¹ 조수룡, “북한 역사상 제1대 사건, 1956년 8월전원회의,” p. 211.

⁷² “8월 종파사건, 미코얀 파일,” pp. 16~18.

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최창익 등을 처벌한 것에 관한 8월 전원회의 결정을 재고한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8월 전원회의의 조치가 약간 서두른 측면이 있고, 그 동지들이 억압됐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처벌이 두려워 중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다.⁷³ 9월 전원회의 결정에서는 이들이 범한 과오가 엄중하다고 규정하면서 8월 전원회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8월 전원회의가 이들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심중성이 부족했고, 처리 방법이 간단했고, 교양적 방법으로 시정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창익·박창옥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복권했고, 윤공흙·서휘·리필규는 당 생활을 회복시켰다. 게다가 당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다.⁷⁴

김일성은 소련·중국의 개입 이후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9월 전원회의의 결정은 1956년 말부터 폐기됐다. 조선노동당은 8월 전원회의의 사건가담자를 비롯한 반당종파분자 색출을 시작했다. 반김일성 운동 인사들의 활동무대였던 평양시당위원회의 고위인사들과 국가대학당위원회, 건설부, 직업총동맹, 상업성 등의 간부들이 해직됐다. 김일성은 미코얀·평터화이와 합의한 박일우 석방과 박일우·방호산을 중국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1957년 1월 평양시당의 단체들을 시작으로 반대파가 많았던 기관들에 대해 당 중앙위원회 집중지도사업을 진행했고, 5월 이후 반종파투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두봉·오기섭·류축운 등이 해임됐다. 1957년 여름까지 200여 명의 반대파 인사들이 종파분자로 체포됐다. 소련 출신 한인과 연안계 군 지휘관도 수백명이 반혁명종파분자로 숙청됐다. 숙청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이 1천여 명에 달했다.⁷⁵ 일부 최창익 지지자들은 1956년 9월 전원회의가 끝난 뒤인 11월 파면됐다. 1956년 말 지방 당기관들에서 자아비판 모임과 사상검토가 시작됐다. 최창익·박창옥 관련자나 연안계로 몰린 당원들은 모두 파면됐다. 박창옥·최창익은 각각 제재소와 양돈장 책임자를 맡았으나 1957년 9월 초 투옥됐다.⁷⁶

김일성은 1956년 9월 전원회의의 이후 탈소련·탈중국 노선의 대안으로 주체 노선을 추진했다.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었다. 북한

⁷³ 위의 글, p. 19.

⁷⁴ “최창익·윤공흙·서휘·리필규·박창옥 등무들에 대한 규률문제를 개정할데 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9월 23일),” 『北韓關係史料集 30』(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p. 796.

⁷⁵ 이종석, “중소의 내정간섭 사례 연구,”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2010), p. 407.

⁷⁶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서울: 오름, 1999), pp. 242~243.

은 1956년 11월 중국공산당에 중국군 철군을 요구했다. 마오쩌둥은 1956년 말 김일성의 요구를 수용해서 중국군 철군을 결정했고, 1957년 1월 9일 모스크바에서 흐루시초프의 동의를 얻었다. 중국은 1957년부터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했다. 1957년 11월 마오쩌둥은 모스크바에서 김일성에게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철군을 통보했다.⁷⁷ 1958년 소련고문단과 중국인민지원군 철수는 소련·중국의 영향력이 줄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⁷⁸

3. 4대 주체 노선

주체사상은 발전되고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로 보기 어렵다. 김일성이 개인승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체사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해 반대파 숙청, 탈소련·탈중국 노선, 주체 노선을 정당화했다. 1955년 제기된 주체의 확립은 사상 부문을 넘어서 경제·정치·국방 부문으로 확장됐다. 4대 주체 노선은 사상에서의 주체(1955), 경제에서의 자립(1956), 정치에서의 자주(1957), 국방에서의 자위(1962)로 제시됐다.⁷⁹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김일성 연설에서는 주체사상을 더 구체화했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⁸⁰했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역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아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립장”과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며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아가는 자주적인 립장”⁸¹을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195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제시한 주체사상은 소련·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정책의 지도이념”⁸²이었다. 당시 소련은 북한의

⁷⁷ 김동길·한상준,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pp. 72~73.

⁷⁸ 조수룡, “북한 역사상 제1대 사건, 1956년 8월전원회의,” p. 212.

⁷⁹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306.

⁸⁰ 위의 글, pp. 304~305.

⁸¹ 위의 글, p. 305; 황장엽도 주체사상의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유사한 내용으로 주장한다. 황장엽,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p. 132.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과 제1차 5개년계획을 중공업 우선 노선에서 경공업 중심 노선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일성은 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소련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경우,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또한 김일성은 탈소련·탈중국 노선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주체사상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의 독자적인 발전 노선이었다. 김일성은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을 제기했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북한의 경제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소련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자립적 경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였다.

김일성은 1957년 정치에서의 자주를 선언했다. 소련·중국은 북한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특히 소련은 김일성 개인숭배 중단과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는 소련·중국과 연계해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요구했다. 소련·중국은 1956년 8월 김일성 개인숭배에 반대하는 최창익 등의 숙청사건에 개입했다. 양국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김일성에게 숙청사건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김일성은 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김일성은 소련·중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에서의 자주를 제기했다.

김일성은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를 발표했다. 북한은 소련의 평화공존정책과 쿠바미사일위기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비판적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소련이 제공하는 경제·군사 원조를 얻기 위해서 공개적 비판을 자제했다. 1962년 북한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했으나 군사 원조를 거부당했다. 소련의 원조 중단은 북한의 군사 분야에 큰 타격을 가했다. 북한은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비난하고 중국에 편승했다. 1962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인민경제 발전을 제약받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국방력 건설을 우선 추진한다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선언했다.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는 방법은 전군의 간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제시했다.⁸³ 북한은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추가해서 4대 군사노선을 완성했다.⁸⁴

⁸² 김영재,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과학논집』, 제17권 (1997), p. 9.

⁸³ 김보미,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2014), pp. 218~223.

⁸⁴ 위의 글, p. 232.

V. 결론

김일성이 1955년 12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제기한 목적은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제기한 후 반대파 숙청, 탈소련·탈중국 노선과 4대 주체 노선 추진을 정당화했다. 주체사상은 반대파 숙청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소련공산당은 김일성 개인숭배 중단, 당내 민주주의 허용,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요구했다. 조선노동당에서 일부 소련 출신 한인들과 연안계 인사들은 소련공산당의 입장을 지지했고,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면서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압박했다. 김일성은 주체의 확립을 제기한 후 반대파들은 교조주의·형식주의에 빠진 종파분자로 규정해서 숙청했다.

또 주체사상은 탈소련·탈중국 노선 추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소련·중국 은 김일성 개인숭배 중단과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요구했고, 전후 복구 경제 건설 과정에서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비판하면서 경공업 중심 노선으로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1956년 8월 반대파 숙청 당시에는 소련·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최창익·윤공흠·서휘·리필규·박창옥의 복권을 요구했다. 김일성은 소련·중국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해 탈소련·탈중국 노선을 추진했고,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했다.

끝으로 주체사상은 소련·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정책의 지도이념이었다.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를 정치·경제·국방 부문으로 확장해서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추진했다. 김일성은 4대 주체 노선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했다. 조선노동당에는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사라졌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해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강화함으로써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1967년 수령유일지배체제 구축은 1955년 제기된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정당화하고,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을 지속한 정치적

결과였다. 김일성 개인숭배와 권력 집중은 1967년을 기점으로 수령유일지배체제로 제도화됐다. 그러나 이 연구의 연구범위는 1965년까지이므로 이후 주체사상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1965년 이후 주체사상의 이론적 구조와 정치적 기능의 변화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할 것이다.

■ 제출: 8월 31일 ■ 심사: 11월 20일 ■ 채택: 11월 2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8.
- 레오날드 사피로, 심흥모 역. 『蘇聯共產黨史』. 서울: 文學藝術社, 1986.
-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서울: 이산, 2006.
- 박상철 옮김. 『개인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 서울: 책세상, 2019.
- 백학순. 『북한권력의 역사: 사상·정체성·구조』.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 『北韓關係史料集 30』. 京畿: 國史編纂委員會, 1998.
- 서재진.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서울: 오름, 1999.
- 이상만·이상숙·문대근. 『북중관계: 1945-2020』.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_____.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올, 1999.

- Eagleton, Terry. *Ideology: an introduction*. New York: verso, 1991.
- Gross, Feliks. *Ideologies, Goals, and Values*. London: Greenwood Press, 1985.
- Thompson, Terry L. *Ideology and Policy: The Political Uses of Doctrine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Routledge, 2018.

2. 논문

-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통권 84호, 2014(봄).
- 김동길·한상준.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제20권 2호, 2014.
- 김보미. “북한의 전후복구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주체’의 제기(1953~1955).” 『아세아연구』. 제56권 4호, 2013.
- _____.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증소분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 제54집 3호, 2014.
- 김영재.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과학논집』. 제17권, 1997.
- 김재웅.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 북소 관계의 균열.” 『史叢』. 제104호, 2021.

- 권혁범. “1950년대 북한의 정치변동(1953-1958): 김일성계 권력독점체계의 확립.” 『아세아연구』. 통권 제95호, 1996.
- 배개화. “북한 문학과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노선, 1953-1956.”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4집, 2018.
- 백준기. “정전 후 1950년대 북한의 정치 변동과 권력 재편.” 『현대북한연구』. 2권 2호, 1999.
- 신진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근로자』. 10월호, 1965.
- 이종석. “중소의 내정간섭 사례 연구.” 『세종정책연구』. 제6권 2호, 2010.
- 이주철. “휴전후 북한주재 소련대사의 활동: 소련의 영향력과 김일성권력의 자율성.”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 장은주. “너지 임례의 헝가리 식 사회주의와 카다리즘-1956년 헝가리 혁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통권 91호, 2013.
- 조수룡. “북한 역사상 제1대 사진, 1956년 8월전원회의.” 『내일을 여는 역사』. 74호, 2019.
- _____.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 수립과 소련의 개입.”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 2018.
- _____.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 『歷史學報』. 제249輯, 2021.
- Dijk, Teun A. Van. “Ideology and Discourse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vol. 11, issue 2, 2006.
- Hamilton, Malcolm B. “The Elements of the Concept of Ideology.” *Political Studies*. vol. 35, no. 1, 1987.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2009.
- Kato, Yayoi. “Two Faces of Ideology: Double-Edged Functions of Ideology in the Reform Discourse Under Xi Jinping.”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vol. 49, issue 2, 2021.
- Knight, Kathleen.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Id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4, November 2006.
- Schull, Joseph. “What is Ideology? Theoretical Problems and Lessons from Soviet-Type Societies.” *Political Studies*. vol. 2, issue 4, 1992.

3. 북한 자료

-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4. 기타 자료

- 『북한관계사료집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중국공산당 당규약.” 2017년 10월 24일 통과. 『인민넷』. <korean.people.com.cn/73554/311142/311157/15688750.html>.
 “8월 종파사건, 미코얀 파일.” 『한미저널』. <korusjournal.com/sec/foreign-doc-main/8월종파사건/>.
 “1962년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역사적 의의.” 『로동신문』. 1962.12.19.
 Harrison, Kevin, Tony Boyd. *Understanding political ideas and movement*. Online Publication. July 30, 2018. <<https://doi.org/10.7765/9781526137951.00011>>.
 Letter from Ri Sang-jo to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October 5, 1956.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52>>.
 Memorandum of Conversation with Pak Ui-wan.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September 06, 1956.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38>>.
 Record of the Third Congres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by L.I. Brezhnev.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20183>>.
 Report from I. Kurdyukov to V.M. Molotov.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International History Declassified. May 11, 195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Formation and Political function of Juche Ideology15702>>.

Abstract

Formation and Political function of Juche Ideology

Oh, Gyeong seob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im Il-Sung introduced the Juche ideology, in December 1955, to consolidate his cult of personality and centralize power. The research explores how the Juche ideology was employed to rationalize the purge of opposition, the advancement of de-Sovietization and de-Sinification efforts, and the promotion of the four primary tenets of Juche. Kim Il-Sung spearheaded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in North Korea, grounded in the four primary tenets of Juche. Throughout this process, he intensified his cult of personality and consolidated power. Consequently, forces that challenged or opposed Kim Il-Sung's cult of personality and concentration of power were eliminated from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rough the Juche Ideology, Kim Il-Sung laid the foundation for a monolithic ruling system centered on the Suryeong leadership.

Key Words: Juche ideology, Kim Il-Sung, Purge, cult of personality, tenets of Juche, Independence in politics